

재난기본소득 지급 순항

군산시, 시민 26만여명에 10만원씩... 절차 간소화 읍·면 시작으로 20일부터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

군산시가 도내 최초로 실시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읍·면에서 실시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시민 5268명이 참여했다. 시는 읍·면을 시작으로 오는 20일부터는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나눠주고 있다.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생계 지원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7일 269억원의 재난관리기금과 순계영여금으로 군산사랑선불카드를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대상은 나이와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3월30일 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26만8542명 모두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

시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신청에 몰리는 것에 대비해 마스크공급 배부와 같은 5부제로 지급이 추진된다. 유효기간은 3개월로 단기간에 걸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병노 안전총괄과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13일부터 시작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총 26만8542명에게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군산지역에서 시민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임준 시장은 "직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펀셋 지원과 중위소득 100% 이하 중산층 세대 전체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현실점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소득방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배경을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난 13일 읍·면에서 실시된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시민 5268명이 참여했다.

성인 10명 중 7명 "혜택 없어도 공공배달앱 사용할 것"

취업포털 커리어 설문조사

성인남녀 10명 중 9명이 수수료가 0원인 공공 배달 앱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권)가 성인남녀 374명을 대상으로 '공공 배달 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8.8%가 '거주 지역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공공 배달 앱이 있다면 사용하겠다'라고 답했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11.2%에 불과했다.

최근 민간 배달 앱의 수수료 논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가 0원인 '공공 배달 앱'이 떠오르고 있다. 처음으로 공

공 배달 앱(이하 배달의 명수)을 개발한 군산시는 코로나19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0원인 배달의 명수를 만들었다.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하면 소상공인은 가입비/수수료/광고료 없이 사용하고, 소비자는 가입 축하 포인트/지역 이벤트/지역 상품권 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 배달 앱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4·15 총선 후보자들도 공공 배달 앱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소비자 본인에게 이득이 없더라도 공공 배달 앱을 사용할 의향이 있을까?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내게 혜택이

없어도 사용하겠다(70.9%)'고 밝혔고 '내게 혜택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겠다' 17.4%, '잘 모르겠다' 11.8%였다. 음식 배달 앱을 사용하는 이유는 '배달 앱이 편리해서(73.5%)'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배달 앱이 주는 혜택과 이벤트가 많아서(11.5%)',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이 줄어들어서(8%)', '사람들이 많이 써서(5.1%)', '원래 잘 이용했기 때문에(1.3%)' 순이었다.

'음식 배달 앱 이용 빈도'는 '가끔 이용한다(35.8%)'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앱 이용 빈도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 58.8%가 '변화 없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민원창구 '투명 칸막이' 350개 설치

익산시가 코로나19 감염증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모든 민원부서마다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

다. 시는 종합민원과,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 및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 업무를 수행하

는 부서에 총 350개의 투명 칸막이를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온(ON)에서 캄보디아 최대 명절인 '졸츠남' 행사가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중이다.

'졸츠남' 을 아시나요?

익산시 다문화이주민+센터, 캄보디아 명절행사 17일까지

익산시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내에 위치한 다가온(ON)에서 캄보디아 최대 명절인 '졸츠남' 행사가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졸츠남'은 캄보디아의 최대 명절로, 새로운 해(츠남)로 들어간다(졸)는 의미로 새해·신년이라는 뜻이다. 캄보디아의 설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매년 4월에 있다.

졸츠남 기간동안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나 다가온(ON)을 방문하는 분들은 캄보디아의 전통음악을 들으면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고 캄보디아 전통의상을 입고 포토존에서 무료 사진을 찍어 볼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한 캄보디아 결혼 이주 여성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 민원처리 위해 들렀는데 고국의 새해맞이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결혼 전에는 설날이 되면 부모 형제와

친지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함께 명절을 보냈었는데 한국에서 살다보니 설날을 잊었었다. 이곳에서 고국 사람도 만나고 정감있는 음악을 들으니 행복하고 내년에는 남편, 아이들과 함께 오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없지만 내방객들에게 작게나마 캄보디아의 향수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에 개소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5개 기관에서 협업하여 외국인 체류관리 및 고용업무 등 민원행정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일 평균 50~60명이 내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2019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 국비8억 확보

대상지로 구시장 최종 선정

익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 제4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추가 공모에 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인근 주차난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익산시 구시장을 최종 선정하고, 시장 이용고객의 주차 편의를 위한 본 사업에 총사업비 13억원(국비 8억원, 시비 5억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현재 구시장은 시장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규모에 비해 주차장이 없

어 열악한 환경으로, 경기침체와 온라인쇼핑 등 소비 패턴 변화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전통시장 이용고객과 상인, 인근 주민들이 항상 불편을 겪고 있던 주차난이 이번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난해 10월 준공한 구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주차장 건립이 더해지면 구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의용소방대 주요공원 일제소독

익산시 의용소방대(남성대장 황인주,여성대장 남궁영례)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내 주요 공원에서 일제소독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주요 공원 및 시설물, 도서관, 시장 등지에 3월 9일부터 매주2회씩 10회에 걸쳐 대원들의 적극적인 인 참여로 지속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4일에도 선거를 하루 앞두고 시민들의 투표 후 잠시 나들이를 할것에 대비하여 유천생태공원, 남부시장, 중앙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등지에 꼼꼼한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

익산시 남성, 여성 의용소방대장들은 코로나-19 일제소독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 일제소독과 예방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군산시가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년1977필지에 대해 14일부터 열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열람 기간은 5월4일까지이고, 시청 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해당 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박준희 토지정보과장은 "의견서가 제출되면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의견인과 함께 현장에서 지가산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